

ICT산업 2021년 4분기 동향

I. 반도체
II. 디스플레이
III. 휴대폰

작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6252-3608)





< 요약 >

(반도체)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7% 성장했으나 수요둔화, 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4% 감소

- (세계시장) 4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250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1% 증가, 전분기 대비 2.1% 감소한 185억 달러 기록
- (가격)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로 D램 고정거래 가격은 하락세 전환,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중국 시안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면서 전분기 수준 유지
- (수출) 4분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동반 호조 지속, 대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 증가한 362억 달러 기록

(디스플레이) 4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반적인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TV 시장 성장,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성장

- (세계시장) LCD 시장은 TV·태블릿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2% 성장, OLED 시장은 스마트폰·TV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성장
- (가격)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수요둔화 등으로 2020년 8월부터 하락세 지속,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도 중국 생산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수출)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TV·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한 71.4억 달러 기록

(휴대폰)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 연말 성수기 등으로 전분기 대비 9.4% 증가한 3.6억대 기록

- (세계시장) 3분기부터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산업에서 IT기기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시장점유율) 애플이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
- (수출) 4분기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41.9억 달러 기록



I. 반도체

(세계시장)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7% 성장했으나 수요둔화, 가격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4% 감소

- 4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250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1% 증가, 전분기 대비 2.1% 감소한 185억 달러 기록
-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비중이 높아지고, PC의 부품 공급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둔화
 - PC 출하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일상으로 복귀 기대,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 * PC 출하량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1.2분기)4.6% → (3분기)1.0% → (4분기)△5.0% (가트너)
 - 비메모리반도체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생산 능력 제약, 차량용 반도체 우선 생산 등으로 공급 부족 지속
-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주요 스마트폰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타 부품공급 부족,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음
 -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AP(Application Processor) 수급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메모리반도체 탑재용량 고용량화는 지속
-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타 부품 공급 부족 등이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용 CPU인 Ice Lake와 밀란(Milan) 출시 등으로 인해 견조세 지속

세계 D램 시장규모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자료: Trendforce.



(가격)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로 D램 고정거래 가격은 하락세 전환,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중국 시안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면서 전분기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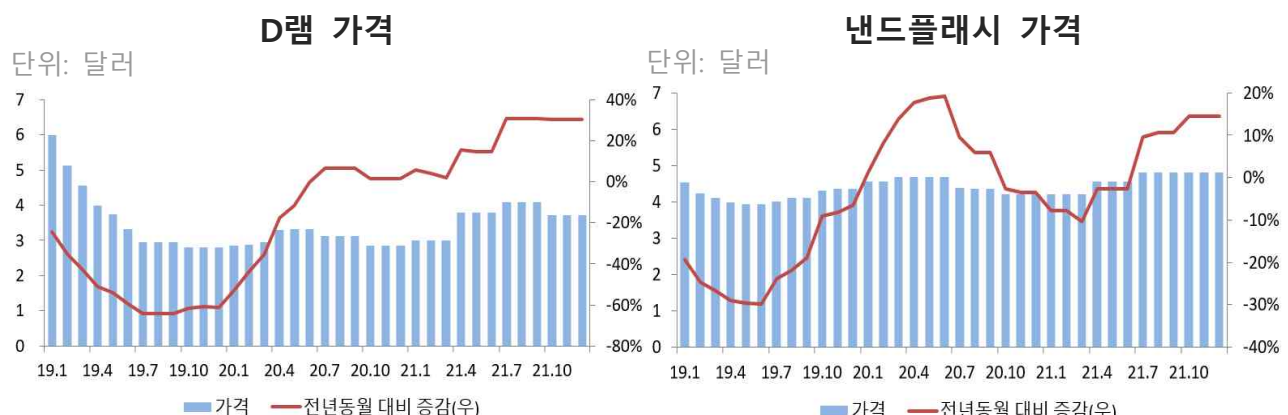
- 4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0.2% 높았으나 전분기 대비 9.5% 하락,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4.5% 높았으며 전분기 수준 유지
- PC 제조사 등 수요기업은 메모리반도체 외 부품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IT기기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메모리반도체 구매보다 재고 소진을 추진하여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 가격하락 유발
- 세계 최대 시장이자 IT기기 생산기지인 중국의 미중갈등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부품 및 완제품 생산 차질 가능성 등도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를 초래
- 2022년 1분기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둔화되었으며* D램 고정거래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중국 시안의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보합 수준을 보임

* PC 제조사는 10주 이상 물량의 D램 재고를 보유

- D램 고정거래 가격은 2022년 1월에 수요기업의 충분한 D램 재고확보 및 수요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8.1% 하락했으나 Spot 가격이 상승하면서 D램 고정가격 추가 하락 우려 완화
- 낸드플래시는 중국 시안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21.12.23 ~ ‘22.1.23), 키옥시아-웨스턴 디지털의 생산라인 중단**(‘22.1월말) 등이 가격에 영향을 줌

*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이 위치한 중국 시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한달간 지역 봉쇄.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사 낸드플래시 생산능력의 42.5%를 담당하며 지역봉쇄에 따른 물류 이슈 등으로 낸드플래시 출하 지연 우려가 가격하락을 방어

** 2022년 1월말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이 공동운영중인 일본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은 재료 오염으로 가동 중단. 동 사건으로 연간 출하량의 약 3%가 영향을 받음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각각 세계 2위, 3위 낸드플래시 기업(‘21.4분 기준))



주: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메모리카드/USB용) 고정거래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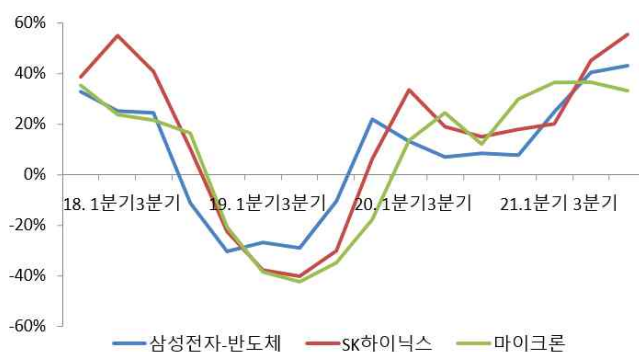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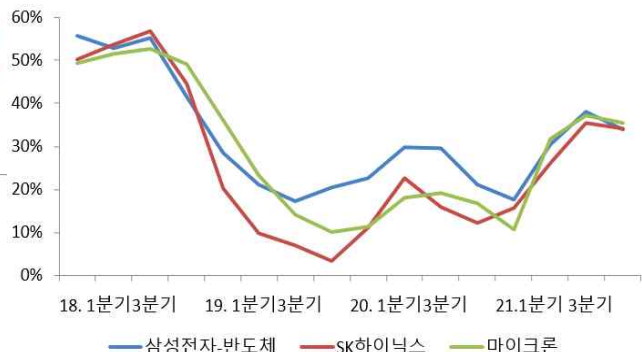
(기업) 4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2분기 연속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이었던 2018년 3분기 실적을 상회

-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3% 이상 증가
 -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한 26.0조원, 메모리반도체 매출(매출 비중 75%)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9.5조원을 기록
 -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서버 중심의 수요 견조세 지속, 15나노 D램 비중 확대, 전년동기 대비 높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¹⁾, 파운드리²⁾의 팹렛 S5라인 가동(‘21.3분기) 및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
-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한 12.4조원 기록, 분기 최대 매출 달성
 - D램(매출비중 71%) 매출은 서버, PC, 중화권 모바일 업체 대상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서버용 D램 매출은 2018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
 - 낸드플래시 매출은 2021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인 3.1조원을 기록
-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수율(양품 비율) 향상 등으로 34%를 기록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0% 증가, 영업이익률은 34% 기록
 -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주력 제품 수율 개선(D램 1z 나노²⁾ 등) 및 비중 확대, 2021년 3분기 이후 낸드플래시 흑자전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7% 증가, 영업이익률은 34% 기록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1) AMD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가 최초로 적용된 4나노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AP 및 관련 제품 공급 시작
2) 기업들은 D램 10나노대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선폭 수치를 밝히기보다 1x, 1y, 1z로 발표. 예외적으로 삼성전자는 자사 1z D램이 15나노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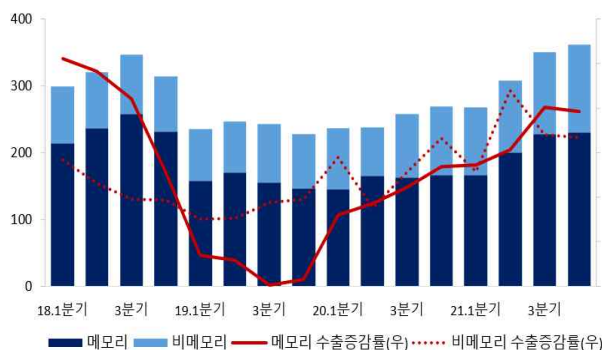


(수출) 4분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동반 호조 지속, 대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 증가한 362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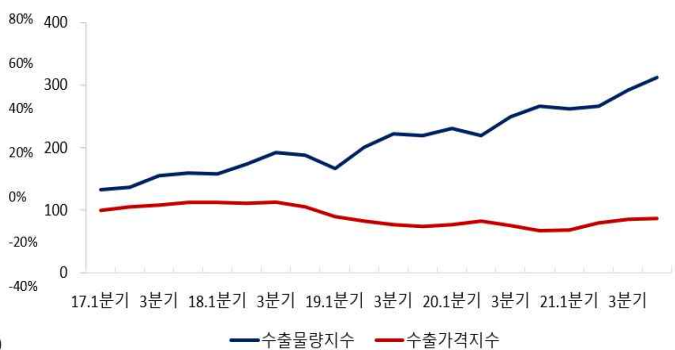
- 메모리반도체 수출(반도체 수출 중 비중 64%)은 전년동기 대비 38.5% 증가한 230억 달러,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0% 증가한 132억 달러 기록
- 메모리반도체 수출³⁾ 중 D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4.1% 증가한 114억 달러, 낸드플래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
-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5G, IoT, AI와 관련된 가전·통신장비 수요 증가, 파운드리·패키징의 수주 확대* 등으로 증가
 - * 퀄컴의 AP(Application Processor), 엔비디아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등을 수주
-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2%,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
 - * 반도체 수출 국가별 비중('21.4분기): 중국 59%, 베트남 11%, 대만 9%, 미국 7%
- 대중국 수출은 2020년 3분기부터 회복되었으며,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
 - *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1.2분기)25.2% →(3분기)35.5% →(4분기)32.4%
- 반도체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28%, 수출물량 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7% 상승
 - * 반도체 수출가격지수: ('20.4분기) 68 →('21.1분기) 69 →(2분기) 79 →(3분기) 86 →(4분기) 87
 -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20.4분기)266 →('21.1분기)262 →(2분기)267 →(3분기)292 →(4분기) 312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1)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개별소자(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를 포함.
2)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3)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MCP(Multi Chip Package)으로 분류. MCP는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며 메모리MCP는 스마트폰에 탑재됨



II.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4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반적인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TV 시장 성장,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성장

- (LCD) LCD 시장은 노트북·모니터 패널 수요는 양호했으나 TV·태블릿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2% 성장
 - LCD TV 패널 출하량은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부터 증가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주요국의 방역 완화 정책 등으로 TV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분기 연속 역성장
 - * LCD TV 패널 출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1.3분기) △13.2% → (4분기) △3.8%
 - 노트북과 모니터는 직원 출근비율 상승에 따른 기업용 수요 증가, 하이브리드 근무(출근+원격근무) 형태 확산에 따른 일반 소비자용 수요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태블릿은 미국, 일본 등에서 원격교육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등교가 시작되면서 수요 둔화
- (OLED) OLED 시장은 스마트폰·TV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성장
 -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OLED 패널 탑재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성장
 - 아이폰13 출시 효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호조 등이 스마트폰용 OLED의 성장을 견인
 - * 스마트폰의 OLED 탑재비중('21) 40% 기록
 - TV용 OLED 시장(OLED 시장의 10%)은 대형 고화질 TV 선호 등으로 분기 최대 출하량(230만대)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29% 성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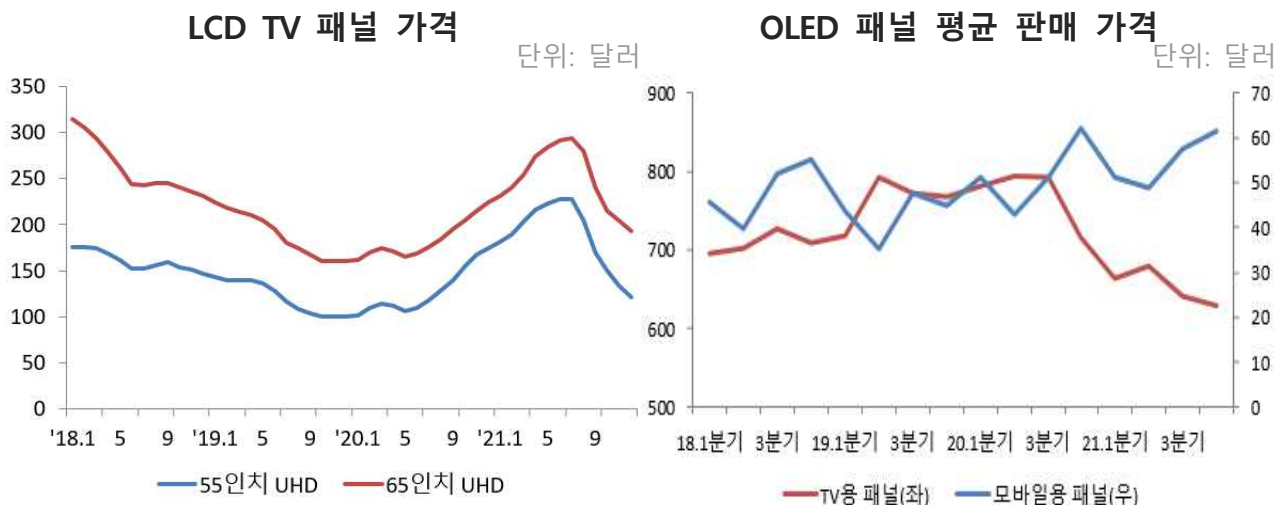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가격)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수요둔화 등으로 2020년 8월부터 하락세 지속,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도 중국 생산 등으로 하락세 지속

- (LCD) LCD TV 패널 가격은 2020년 6월부터 재택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TV 수요 증가 등으로 13개월간 상승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수요 둔화 등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 지속
 - 4분기 55인치 UHD(Ultra High Definition, 4K 해상도) TV 패널 평균 가격은 방역 정책 완화로 일상 복귀가 가속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33%, 전년동기 대비 19% 하락
 - LCD TV 패널 가격은 2022년 1분기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55인치 UHD TV 패널은 전분기 대비 19% 하락 전망할 전망이나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가 변수로 작용
 -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2022년 TV 수요 둔화, 패널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연기, LCD 사업 중단 등을 검토중
 -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2022년 6월 중단 검토,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공장에서 LCD 생산을 지속하되 국내 LCD 생산은 2023년 중단 예상
- (OLED)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2%,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 하락
 - OLED TV 패널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40인치대 패널 수요가 게임 및 세컨드 TV용으로 증가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 하락
 - * LG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 공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양산 본격화, 2021년 상반기에 중국 광저우 팍에 30K를 증설
 -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고부가 패널을 사용하는 아이폰 신모델 출시, 폴더블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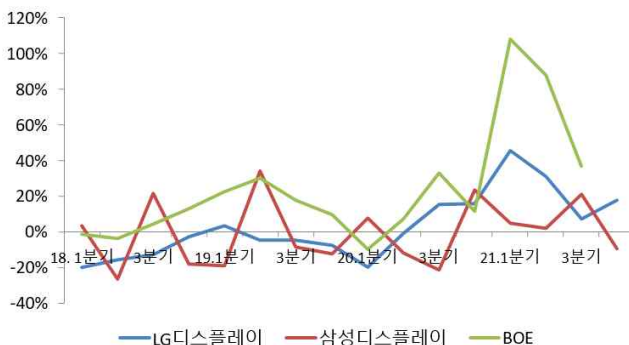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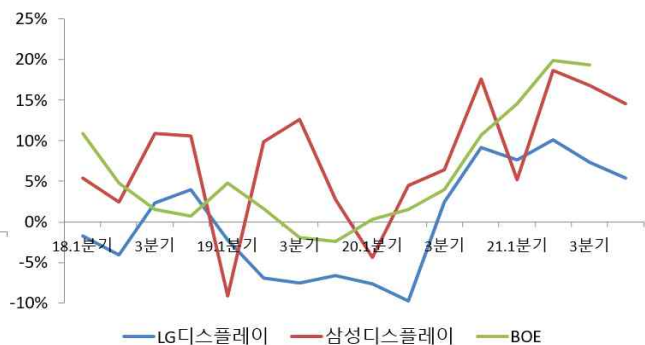
(기업)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사업의 OLED 전환 등으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출하 증가 등으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삼성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사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의 QD OLED로 전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 감소한 9.1조원 기록
 - *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White OLED), 삼성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퀀텀닷(양자점)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 사용
- 중소형 디스플레이 사업은 OLED 패널 사업만을 영위하며, 스마트폰용 OLED 수요 견조세 지속, 노트북 등 신규 수요처 판매 증가 등으로 호조세 지속
-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은 LCD에서 OLED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LCD 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
 - * 2021년 11월부터 QD OLED 패널 양산을 시작, LCD 패널 생산은 2022년 6월 종료 예상
- 영업이익은 QD OLED 사업 초기 비용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5%, 전분기 대비 11% 감소
- (LG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은 OLED 비중 증가, IT기기용 LCD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8.8조원을 기록
 - 패널 출하면적은 견조한 IT기기용 패널 출하 지속, OLED TV 패널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 증가
 - 면적당 판가는 OLED 패널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 상승
 - * 4분기 수요처별 매출 비중: IT 패널 42%, TV 27%, 모바일·기타 등 31%
 - 영업이익은 LCD TV 패널 가격하락,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전분기 대비 10% 감소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



(수출)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TV·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71.4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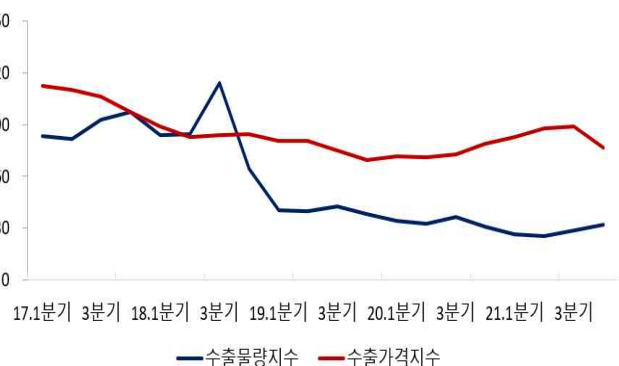
-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한 44.5억 달러,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16.2억 달러 기록
- OLED 수출은 2019년 3분기부터 LCD 수출을 추월했으며, 스마트폰 및 TV용 OLED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2020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해왔으나 2021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9.6%로 낮아짐
- LCD 수출은 패널 가격 하락,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 지속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과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각각 5%, 50% 증가
 - * 국별 디스플레이 수출비중('21.4분기): 베트남 62%, 중국 32%
- 베트남은 OLED 최대 수출대상국(비중 82%)이며 한국기업의 스마트폰·TV 생산기지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 증가
- 대중국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
-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77로 전년동기 대비 3% 하락했으나 수출 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3% 증가
-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LCD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11% 하락 하면서 하락세 지속
 - * 디스플레이 수출가격지수: ('20.4분기)79 →('21.1분기)83 →(2분기)88 →(3분기)89 →(4분기)77
 - *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20.4분기)31 →('21.1분기)26 →(2분기)25 →(3분기)28 →(4분기)32

디스플레이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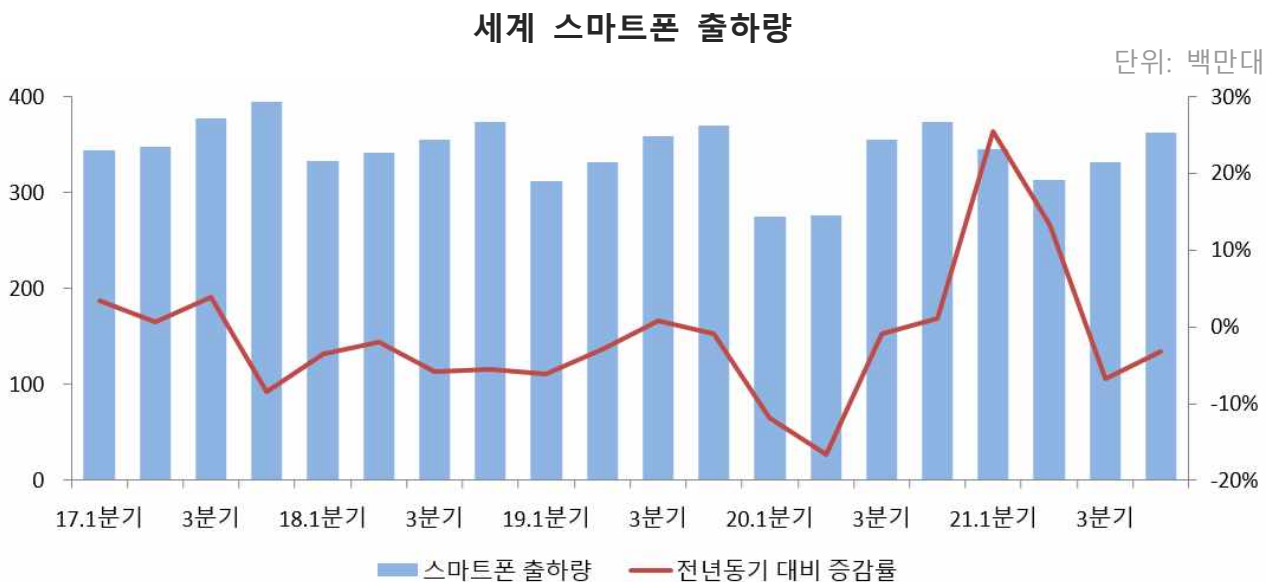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Ⅲ. 휴대폰

(세계시장)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 연말 성수기 등으로 전분기 대비 9.4% 증가한 3.6억대 기록

- 3분기부터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산업에서 IT기기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 물류 이슈, 중국의 전력난 등이 부품 생산 차질을 유발하면서 모든 스마트폰 기업이 영향을 받음
-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대비 공급이 양호했으나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AP(Application Processor),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전력관리반도체(PMIC) 등의 공급부족 발생
- 4분기에는 주요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 9.4% 감소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역성장



자료: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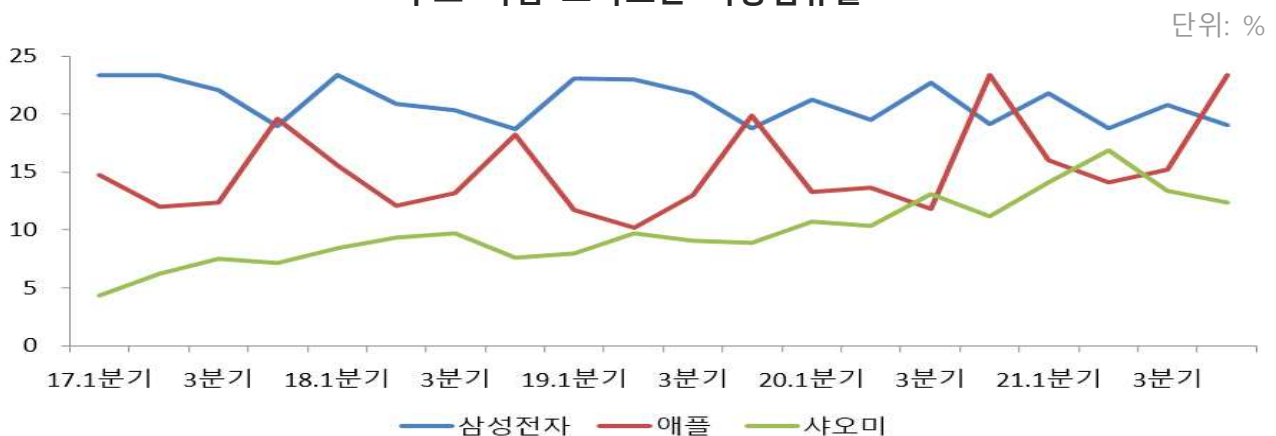
(시장점유율) 애플이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

-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 중국 전력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나 신모델 출시효과로 전분기 대비 68%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은 23.4% 기록



- 10월 석탄공급 부족 등에 따른 중국의 전력난 발생으로 아이폰 공급망내 일부 기업이 수일간 가동을 중지하면서 애플은 아이폰 생산목표를 하향 조정
-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3은 세계적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으며, 중국에서는 미중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화웨이의 몰락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
 - *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20.4분기)19.3% → ('21.4분기) 20.6% (IDC)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품 공급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며 시장점유율은 19.0% 기록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폴더블폰(8월말 출시)과 중가 A시리즈의 판매호조 지속 등으로 상위 3개 스마트폰 기업 중 유일하게 전년동기 대비 출하량이 증가
 -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갤럭시노트를 출시했으나 2021년에는 갤럭시노트 신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폴더블폰 사업에 집중, 갤럭시Z3 시리즈는 전모델 대비 약 20% 낮은 가격에 판매됨⁴⁾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부품 부족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9%,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은 12.4%를 기록
 - 샤오미가 강점을 보유한 저가 스마트폰 판매는 4G 스마트폰 부품 부족 등으로 부진
 - 샤오미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노트11과 Mi12 시리즈의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나 Honor의 성장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위로 낮아짐
 - * Honor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에서 분사된 스마트폰 회사로 4분기 중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
 - *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애플 20.6%, Honor 17.0%, 비보 16.8%, 오포 16.6%, 샤오미 16.6% 순 (IDC)

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4) 갤럭시Z 폴드3은 1,799달러, 갤럭시Z 플립3은 999달러부터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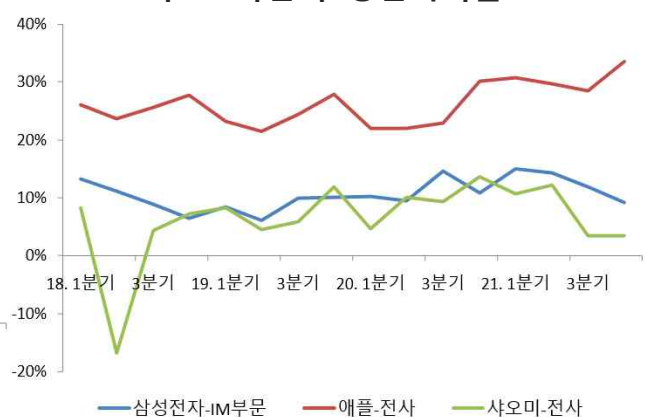
(기업) 삼성전자 IM(IT & Mobile Communication) 부문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 애플의 매출은 신모델 출시 효과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성장

- 삼성전자 IM 부문 매출은 스마트폰 부품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스마트폰(갤럭시Z3 등)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전분기 대비 2% 증가
- 삼성전자 IM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나 폴더블폰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9%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
 - * 폴더블폰은 2021년 프리미엄 안드로이드폰(천 달러 이상) 출하량의 1/3을 차지
-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아이폰13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
- 아이폰 매출은 신모델 판매 호조 지속,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성장, 서비스(아이튠즈, 애플뮤직 등) 사업 강화로 타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
 - * 4분기 애플 총 매출은 제품 84%, 서비스 16%로 구성되며 아이폰 매출비중은 58%
-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 샤오미는 인도, 유럽 등에서 선전하면서 해외 스마트폰 매출은 총매출의 52%를 차지했으며,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6.7% 상승
 - * 4분기 샤오미의 총 매출중 스마트폰 비중은 59%
- 샤오미의 4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5.6% 상승했으나, 중저가폰 판매비중이 높고, 하드웨어 부문의 순이익률을 5% 넘기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타사 대비 낮은 3.5%를 기록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수출) 4분기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41.9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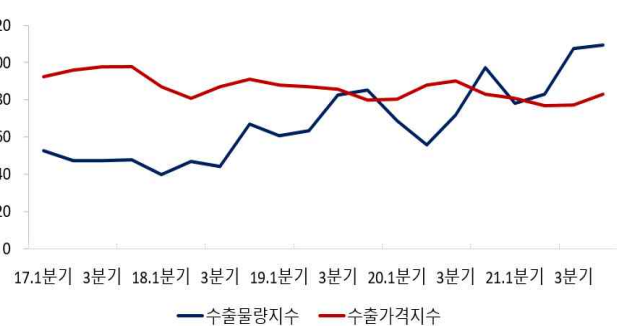
- 부분품 수출(비중 71%)은 전년동기 대비 13%, 완제품 수출은 전략폰(갤럭시Z폴드 3 등)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
- 부분품 수출은 시스템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33% 증가
- 완제품 수출은 전략폰 판매 호조, 우리기업의 점유율이 낮았던 중국에서 폴더블폰의 선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8% 증가
-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홍콩포함), 베트남 수출은 각각 20%, 6%, 증가
- 대중국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부진하던 완제품 수출의 2분기 연속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지속
 - *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성장 등으로 1% 이하였으나 중국내 폴더블폰 신모델 판매 호조 등으로 완제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 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전략폰 판매호조 등으로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 증가
- 4분기 휴대폰 수출가격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수준 유지,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3% 상승
 - * 휴대폰 수출가격지수: ('20.4분기)83 →('21.1분기)81 →(2분기)77 →(3분기)78 →(4분기)83
 - *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20.4분기)97 →('21.1분기)78 →(2분기)83 →(3분기)106 →(4분기)109

휴대폰 수출액

단위: 억 달러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가격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가격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